**제4장 빈첸시오회의 성인들과 복자들**



**4.1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1581-1660)**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의 이름을 따라서 만들어진 빈첸시오회의 주보성인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입니다. 1885년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성 빈첸시오를 자선 사업의 주보성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자선의 사도” 이자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작**

빈첸시오 드 폴은 1581년 4월 24일에 스페인 북부 국경과 피레네 산맥에서 그리 멀지 않은 프랑스 남서부 지방 가스코니의 랑드 지역의 오래된 도시인 닥스 시 근교의 푸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역은 현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첸시오는 여섯 명의 아이를 가진 농부 부부인 쟝 드폴과 베르뜨랑드 드 모라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들 넷과 딸 둘을 낳았습니다. 드폴 부부는 그들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년시절에 빈첸시오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가축들을 돌봤습니다. 그 지역의 목동들은 습지 지대를 옮겨 다니기 위해 죽마(竹馬)를 사용했습니다. 빈첸시오는 전원의 소박한 삶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성격과 여성스러움은 빈첸시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빈첸시오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사랑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빈첸시오는 어머니에게서 장래에 행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사랑을 주는 일의 기반을 세울 영감을 얻었습니다.

**사제직**

쟝 드폴은 그의 아들의 지적 능력과 쾌활한 성격을 알고 그가 사는 마을에서의 한정된 기회를 인식하고는 1591년에 빈첸시오가 사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근처 닥스에 있는 프란치스코회의 기숙학교에 입학시킵니다. 출세에 대한 큰 희망이 없는 시골 사람들에게는 사제직 이야말로 가장 신분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닥스에서 코메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빈첸시오를 눈여겨보고는 그를 자기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의 교육이 빈첸시오의 사명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빈첸시오는 뚤루즈 대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아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 드 폴 씨는 황소 한 쌍을 팔았습니다. 1596년에 빈첸시오는 사제직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삭발식과 하급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는 1600년 9월 23일에 프랑스 페리궤의 주교에 의해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빈첸시오는 그때 겨우 19세였으며 아직 뚤루즈 대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서품된 사제로서, 빈첸시오는 재산과 고정 수입이 있는 성직 지위인 성직록을 추구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사용할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 그의 거처에 기숙사 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빈첸시오는 신학 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했고 1604년 10월 12일에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무렵 그는 꽤 많은 돈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에 정착하여 빈첸시오는 마르게리뜨 여왕의 사제와 함께 궁정 법원에 숙소를 마련했는데 이는 그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상당한 성직록을 추구하면서 빈첸시오는 그의 어머니에게 그가 여전히 그녀와 가족들에게 고정 수입을 줄 수 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자 빈첸시오는 영혼의 어두운 시기를 맞이하여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얼마 후 그는 만일 하느님께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면 그의 삶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시 고뇌는 그를 떠나갔습니다. 고뇌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았고 빈첸시오는 굳건히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맹세를 이행하게 됩니다.

**본당 신부 빈첸시오**

유명한 프랑스 학파 영성의 창시자인삐에르 드 베뤼 신부는 빈첸시오의 영적 지도신부가 되었습니다. 드 베뤼는 빈첸시오에게 파리 외곽의 끌리쉬 주임 신부직을 맡겼습니다. 사제로 임명 된지 12년만에 처음으로 그는 사제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612년 5월 12일에 본당을 맡게 되었으며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또 다시 빈첸시오는 사제직을 열망하는 기숙학생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훗날 그가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공동체를 만들 때 그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빈첸시오는 이때 32세가 되었고 인생의 황금기를 맞았지만 그는 여전히 뭔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빈첸시오는 유럽의 가장 유서 깊은 가문 중 하나인 드 공디 가 자제의 교육과 양성을 맡기 위해 끌리쉬 교구를 떠났습니다. 필립 에마뉴엘 드 공디 백작은 왕궁 갤리선들을 지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프랑소와즈 마르게리뜨 부인 역시 귀족 태생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빈첸시오를 영적 지도 신부로 삼았습니다. 드 공디 부인은 그의 영지에 사는 가난한 이들을 사목하기 위해 빈첸시오와 함께 그녀가 소유한 광활한 영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여행 중 하나였던 1617년 폴빌시로의 여행 중에 한 임종을 앞둔 남자의 고백을 듣는 동안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빈첸시오의 의지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드 공디 부인에게 만일 빈첸시오가 없었더라면 자신은 저주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 공디 부인의 주장으로 빈첸시오는 사람의 한 평생의 총 고해에 특정한 초점을 맞춘 화해의 성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1617년 1월 25일,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폴빌시의 사람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여러 명의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빈첸시오는 본당 사목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영적 지도신부 삐에르 드 베뤼는 드 공디 가를 떠나려는 빈첸시오의 소망을 지지했고 그로 하여금 리옹 근교의 샤띠용 레 동브 본당을 맡을 것을 제안했는데 빈첸시오는 이 곳에 1617년 8월 1일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빈첸시오는 본당의 부인들을 모아서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돕는, 훗날 “자선 부인회”로 불리게 될 자선 단체를 설립합니다. 빈첸시오는 직접 그들의 최초 회칙을 작성하였습니다. 동 회칙은 1617년 11월 24일 리옹의 총대리주교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자선 단체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12월 8일에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빈첸시오의 비젼과 소명은 이제 변화되었고 그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로써 그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였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

빈첸시오는 믿음으로 거룩한 섭리를 “한 걸음씩”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드 공디 가문은 빈첸시오가 돌아와주길 바랐으며, 그의 영적 지도신부는 그에게 파리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늘 순명하던 빈첸시오는 이에 따랐습니다. 빈첸시오는 새로운 영적 지도신부로 파리 소르본 대학교의 교수 앙드레 듀발을 얻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열중했으며 이제 그가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하는 것이라 여기게 된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을 설립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빈첸시오는 프란시스 드 살을 만나게 되었고 둘은 견고한 우정을 키워나갔습니다. 드 살은 빈첸시오에게 방문회 수녀들의 영적 신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빈첸시오는 또한 방문회의 공동 설립자인 장래의 성녀 잔느 프랑소와즈 드 샹탈 수녀의 영적 지도 신부가 되었습니다. 1622년 프란시스 드 살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빈첸시오는 오랫동안 이 역할을 지속하게 됩니다.

필립 에마뉴엘 드 공디는 감옥 수감자들과 갤리선의 노예들을 빈첸시오에게 맡겼습니다. 루이 13세는 1619년 2월 8일에 그를 갤리선의 주임 사제로 임명했습니다. 빈첸시오는 재빨리 방문과 선교를 위해 떠났습니다.

빈첸시오의 생각은 명료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그의 주님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드 공디 가는 1625년 4월 17일에 막대한 액수의 돈을 빈첸시오의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파리 대주교는 빈첸시오가 설립하고 또한 빈첸시안들로 알려져 있던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공동체인 전교회(CM)을 1626년 4월 24일에 승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빈첸시오는 교황청의 승인을 위한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의 공동체의 목표는 가난한 시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사제들로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은 1633년에 이 공동체를 승인했습니다.

**빈첸시안 사도직의 확장**

1625년에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빈첸시오는 13세 아들을 둔 과부인 루이즈 드 마리약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과부로서 루이즈는 그녀의 삶에 오신 하느님의 은총을 맞아들였고 그녀의 짜증을 잘 내는 마음씨는 용감하고 관대하며 동정심 많은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절망에 빠지고 소외되었으며 버려진 이들을 맞아들여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1629년 빈첸시오는 그녀를 자선 수도회들과 자선 부인회를 조직하고 지도하고 활성화하도록 파견하였습니다. 루이즈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희망을 찾았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1633년 11월 29일, 주님의 섭리에 따라 그리고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의 지도 아래에서 루이즈 드 마리약은 온전히 헌신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소수의 여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를 위해 하느님께 바쳐진” 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딸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루이즈가 이 수녀들에게 읽는 법과 쓰는 법,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보건, 사회 사목, 교육을 시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랑의 딸회 회원들에게 행동 안에서 묵상하도록 가르치면서 이들이 가난한 이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가난한 이들을 발견하는 빈첸시오 영성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녀는 수녀들에게 “존경과 온유와 진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돕도록 가르쳤습니다.

사제로서 빈첸시오는 17세기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그들의 재능과 기술을 교회를 위해, 특별히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자선 부인회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지난 800여년간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직무를 맡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그러한 직무를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들 중 몇 사람에게 병든 가난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주도록 하시는지를 지켜 보십시오.”

매년 3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파리의 거리에 방치되고 그들 중 다수는 적은 돈에 부랑자들에게 팔렸으며 부랑자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구가 되곤 했습니다. 1638년 빈첸시오는 이런 학대 받고 방치되는 거리의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보호소를 마련했고 루이즈는 이들 불쌍한 고아들을 보살피고 애정을 베풀어 주기 위해 사랑의 딸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자선 사업들은 빈첸시오가 주목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권력자들은 그에게 관심을 가졌고 정치인들은 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주교들과 사제들은 그에게 와서 교육과 양성을 부탁했습니다. 빈첸시오는 권력이 있는 이들과의 만남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루이 13세는 빈첸시오에게 그가 주교의 직에 최적임자라고 판단하는 사제들의 명단을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1643년 6월에 양심이사회가 구성되었을 때 오스트리아 황후 안느의 주장에 따라 62세의 빈첸시오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빈첸시오의 사목은 그의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죽은 이들을 묻어주고 피난민들과 고아들을 돌봤으며 아픈 이들의 집과 병원에 찾아가서 간호했고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열었습니다.

파리의 부랑자 수가 100,000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두 지구에서만도 대략 24,000명의 가족들이 더러운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백 여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파리의 호텔 디유 병원에서 죽어갔습니다. 도시 전체에서 매달 만명 이상의 사망이 보고되었습니다.

72세가 된 빈첸시오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증가해가는 수요에 대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상황을 주지시키고 그의 자선 사업 수행 방식을 개량해 나갔습니다. 빈첸시오는 상인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 수레를 갖고 다니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매주 그의 후계자들은 사제관을 창고 및 분배 센터로 사용해가면서 의류와 수천 파운드의 음식을 수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마무리**

1660년 7월 빈첸시오는 병이 들어 방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사목활동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의 꿈, 그의 희망은 침대에서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제가 된지 60년을 기념한 바로 다음날인 1660년 9월 27일 아침 이른 시각에 빈첸시오는 의자에 앉아 사망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빈첸시오의 시성 절차는 1705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의식들은 1729년 8월 21일 로마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빈첸시오 드폴은 1737년 6월 16일 교황 클레멘스 12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성 빈첸시오의 축일은 9월 27일에 지냅니다.***

**4.2 성 루이즈 드 마리약(1591-1660)**



빈첸시오 영성과 카리스마는 협동, 상호성, 그리고 빈첸시오 드폴과 루이즈 드 마리약의 우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루이즈 드 마리약은 아내였으며 어머니였고 과부이자 선생이자 간호사이며 사회사업가인 동시에 설립자였습니다. 그녀는 조직자였고 급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열정적이고 강렬한 삶을 살았습니다. 루이즈는 거룩한 하느님께 대한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고 그녀가 삶에서 추구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겪었지만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이 고난과 사랑을 통해 그녀는 행동하는 신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시작**

루이즈는 1591년 8월 12일 태어났는데 그때 그의 부친 루이 드 마리약은 35세의 홀아비였습니다. 그녀의 모친의 진짜 신분은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 아마도 루이즈는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법적으로 본다면, 서출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마도 드 마리약 집안의 하녀였고 사회 관습상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기였던 루이즈는 포아씨에 있는 도미니코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맡겨졌으며 가족의 사랑이나 보호를 알지 못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루이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종종 그녀를 보러 왔습니다. 포아씨에서 루이즈는 철학, 신학, 라틴어, 그리스어, 문학에 대해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도미니코회와 신비로운 영성, 그리고 기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루이즈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그녀는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하나뿐인 혈육을 잃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포아씨의 수도원 학교에서 나와서 파리에 있는 기숙학교에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요리, 가사, 바느질 같은 실용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루이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 운동은 루이즈에게 스스로를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무살이 되자, 그녀는 봉쇄 수도원인 열정의 딸회에 입회 신청을 했습니다. 루이즈의 불안정한 건강 상태로 인해 그녀가 엄격한 회칙을 견녀 내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카푸친회 장상은 다음과 같은 예언적 언급을 하면서 그녀의 입회를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결혼**

1613년 2월 5일 루이즈는 마리 드 메디치 왕비의 시종인 앙트완 르그라와 결혼했습니다. 루이즈가 서출이었기 때문에 드 마리약 집안에서는 그녀와 귀족을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앙트완은 중인 신분이었으므로 루이즈는 르그라 부인이 아닌 르그라 양이 되었습니다. 루이즈는 스물 두 살이었고 앙트완은 서른 두 살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이 당시의 풍속대로 중매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 싹터나갔습니다. 앙트완과 함께 있을 때 루이즈는 기쁨과 가족의 따스함을 느꼈고 아들 미첼 앙트완의 탄생으로 이는 한층 밝아졌습니다.

루이즈는 미첼을 사랑했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미첼은 발육이 더디고 배움이 늦었으므로 루이즈는 늘 걱정이었습니다.

결혼한지 7년이 지나 앙트완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마도 결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의기소침해지고 화를 냈습니다. 루이즈는 남편을 사랑했고 보살폈지만 그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한 정의가 주요 영적 주제였을 무렵에 루이즈는 근심 어린 자기성찰을 했고 그녀의 고통에 사로잡혀서 영혼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623년 5월 5일 성령강림 대축일에 그녀는 그녀에게 크나큰 평화를 가져다 주신 성령의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즉시 모든 의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나는 내가 청빈, 정결, 순종의 서원을 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같은 서원을 한 사람들이 모인 작은 공동체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내 이웃을 돕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러려면 많이 돌아다녀야 할 텐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수녀 공동체들이 봉쇄형태로 생활했기 때문에 루이즈는 어떻게 서원을 한 여인이 파리 거리를 “돌아다니는”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의 “성령강림절 빛”의 체험이 있은 후 2년도 더 넘도록 그녀는 죽어가는 남편 곁에 늘 머물렀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그녀는 1625년 12월 21일에 남편을 매장하였습니다. 루이즈는 슬픔과 외로움과 버려진 느낌에 거의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어떻게 열 두 살짜리 아들 미첼을 키울 것인지 걱정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앞날을 맞이했습니다.

**빈첸시오 드폴과의 만남**

바로 그때, 하느님의 섭리로 빈첸시오 드폴이 루이즈를 만나게 되어 그녀의 영적 지도 신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빈첸시오와 루이즈는 서로에 대해 그다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나 두 사람은 명백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빈첸시오는 진실로 루이즈의 안내자이자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보다 열 살 위로서 그는 신앙의 여정을 경험하고 많은 시련의 불을 거쳤으며 그의 심장을 몽땅 태웠습니다. 빈첸시오는 루이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가 겪은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그녀에 대해 더 알게 될 수록 그는 그녀가 어렸을 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경험과 남편의 죽음이 얼마나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의 내면에 있는, 하느님의 뜻을 알고 완성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친구가 되자 빈첸시오는 하느님과 그녀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훗날 가톨릭 교회의 종교적 삶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사목 활동에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빈첸시오는 루이즈에게 1617년에 자신이 설립한 자선 협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행하는 그의 일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선 활동들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빈첸시오는 그들에게 행해지는 봉사는 동정심이 있고 친절하며 존경심을 갖추고 헌신적이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선협회들은 자기들의 집에 있는 가난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시골 아낙네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빈첸시오는 또한 자선 부인회를 조직했는데 이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파리의 부유한 여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 귀족 부인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너그럽게 봉헌했으나 허드렛일을 할 때는 종종 자기들의 하인들을 보내서 시켰습니다.

루이즈는 점점 자선협회와 자선 부인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선협회를 이끌고 조직하고 활성화했으며 회원들이 그들이 행하는 봉사의 영성에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빈첸시오는 그녀의 영성과 판단과 조직력에 크게 의지했습니다. 조금씩 루이즈는 하느님과 자신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신비로운 여정은 계속되었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그녀 영혼 안에서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깊은 내면에서 치유의 손길이 그녀의 부서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했고 그녀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녀 내면에 숨어있던 창조적인 잠재력이 열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루이즈를 가난한 이들에게 이끄시자, 그녀의 마음에는 자선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녀는 그녀가 섬기는 사람들의 부서진 마음과 영혼들 그리고 빈곤한 육신들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소중히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딸회**

1630년 빈첸시오가 사명에 대해 설교하고 있을 때 마르게리트 나소라는 여인이 그를 찾아와서 가난한 이들을 돕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마르게리트는 서른 두 살의 농사짓는 여인이었고 글을 읽는 법을 터득하여 농촌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빈첸시오는 그녀를 루이즈에게 보냈고 그녀는 파리의 자선 부인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우는 널리 영향을 미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젊은 여인들이 가난한 이들을 돕기를 자처하면서 루이즈와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루이즈는 이 젊은 여인들이 봉사를 끝까지 해나가기 위해서는 기도에 기반한 확실한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 젊은 여성들이 오직 믿음으로 가난한 이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 안에서 가난한 이들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가난하고, 버림받았고, 고아이며, 병들고, 문맹인 이들에 대한 봉사에 헌신하기 위해서 상호 지원과 용기, 소속될 공동체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633년 11월 29일, 빈첸시오와 함께 여러 해를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루이즈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보이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공동체 생활을 할 열망을 가진 몇몇 젊은 여인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사랑의 딸회는 만들어졌습니다. 루이즈는 빈첸시오가 사랑의 딸회의 소명을 설명할 때 그녀가 본 “성령강림절의 빛”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바로 병든 이들의 집이 당신들의 수도원이 될 것입니다. 셋방이 수도실이 될 것이고 경당이 여러분의 본당이 될 것이며 도시의 거리가 수도원의 회랑이 될 것입니다. 순명이 수도원의 담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이 수도원의 창살이 될 것이며 거룩한 겸손이 수녀의 베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소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섭리 안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속되는 신뢰와 당신과 당신이 가난한 이에게 행하는 봉사를 통해 만유의 주님께 바치는 봉헌 외에는 다른 어떤 형태의 직업도 갖지 마십시오.”

사랑의 딸회의 사명은 집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고아들, 병원에 있는 병든 이들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정신적으로 아픈 이들, 연로한 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의 협업이 많아질수록 루이즈와 빈첸시오는 대담한 결정과 신중한 계획 그리고 항구함을 결합시키면서 그들의 상호보완성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빈첸시오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의 독자적인 비젼을 제공했고 그 비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루이즈는 이 비젼을 현실로 변형시켰습니다.

마침내 1650년 루이즈는 그녀의 아들 미첼이 결혼하여 정착하자 안심을 하게 됩니다. 루이즈 르네가 태어나자 그녀는 할머니로서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마무리**

루이즈는 1660년 3월1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사랑의 딸회 회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수 세기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잘 돌봐 주십시오.” 회원들을 위해서 남긴 그녀의 격언은 여전히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십자기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자비가 우리를 재촉합니다.” 루이즈는 그녀와 회원들을 재촉하여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 억압당하는 이들과 짓눌린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배우지 못한 이들 그리고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라고 재촉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딸회는 가난한 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 어디서나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녀의 자선의 유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루이즈 드 마리약은 1920년 5월 9일 교황 베네딕토 15세에 의해 시복 되었고 1934년 3월 11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성 되었습니다. 1960년 2월 10일, 교황 요한 23세는 성녀 루이즈를 모든 그리스도교 사회 사업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성녀 루이즈의 축일은 3월 15일에 지냅니다.***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1813-1853)**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으뜸 창립회원인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은 지적인 천재성과 특출한 거룩함 두 가지를 보여준 흔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이자 남편, 교수이자 연구가, 기자이자 작가, 신앙의 보호자이자 옹호자였던 그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착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시작**

앙토안느 프레드릭 오자남은 1813년 4월 23일 그의 부모가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던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부터, 장 앙트완 오자남과 마리 낭타는 열성적인 가톨릭 신자이었으며 프레드릭이 어릴 때부터 그에게 하느님과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프레드릭에게 인간적 고통과 사회적 불의로 인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도록 가르쳤습니다.

프레드릭은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철학과의 첫 대면이 그의 날카로운 지성에 대한 도전이 되었고 그를 불확실성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위기에서 프레드릭은 하느님께서 영혼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신다면 그의 삶을 진리에 대한 봉사에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시 신앙에 대한 그의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프레드릭은 죽을 떄까지 그의 서약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의 조언자였던 마티아 노와로는 훗날 프리드릭에게,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신앙 안에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면서, 철학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었습니다.

**파리**

프레드릭은 리옹의 왕립 대학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그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법학 공부를 하기 위해 파리로 떠납니다. 거기서 그는 깊은 혼란에 빠진 사회와 직면하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흉하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 프레드릭은 파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831년 12월 18일자 편지에서 그곳에는 삶도, 신앙도, 사랑도 찾을 수가 없다고 썼습니다. 프레드릭은 파리를 활기찬 청년인 그가 매이게 된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고 인식하였습니다. 파리의 추위는 그를 떨게 만들었고 파리의 부패는 그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프레드릭은 유명한 앙드레 마리 앙페레를 만나게 되었는데 앙페레는 장차 프레드릭에게 또 하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앙페레는 프레드릭에게 마음을 열고 그가 외로움과 향수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프레드릭은 파리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정신은 오늘날 사회의 악을 치료할 유일한 수단이며, 그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진리가 증명되어야만 했습니다.

리옹에서 프레드릭은 그의 18번째 생일을 맞기 전에 *역사적, 종교적, 도덕적 믿음에 의한 가톨릭 종교와 진리의 실증*이라는 제하의 방대한 저서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목은 여러 차례 변화를 겪지만 훗날 교수가 되는 이 학생은 마침내 그의 젊은 시절 꿈을 이루게 됩니다!

**진리와 사회 정의의 추구**

파리에서 프레드릭은 자주 하루에 열다섯 시간씩 외국어와 가톨릭 이외의 타 종교에 대해 공부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는 같은 생각과 신앙을 가진 학생들을 모았고 그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소르본의 교수진에 맞섰습니다. 프레드릭과 다수의 친구들은 파리 대주교 이야신뜨 루이 드 쾰른에게 가서 앙리 라코르데 신부가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강연을 하게 해 달라고 탄원했습니다. 목적은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많이 듣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의 신앙을 풍요롭고 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프레드릭은 대주교가 동의할 때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엄청났고 “노트르담의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직관, 감수성, 재치를 재능으로 받은 프레드릭은 그의 유년기부터 사회 하층 계급의 거칠고 불공평한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1848년 4월 27일의 프랑스 식민지와 해외 자치령들에서 노예제도의 폐지가 공표되기 19년전에 갓 16세가 된 프레드릭은 엄중하게 노예제도의 비인간적임을 규탄하였습니다! 훗날, 1848년의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발표되기 12년전에 프레드릭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 편차가 더 커지는 것을 개탄하고 그들 간에 벌어질 충돌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프레드릭은 시람들을 갈라놓는 것은 정치적인 구조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에마뉴엘 베일리가 1832년 1월에 창간한 신문인 *트리뷴 가톨릭*에서 더 발전되었습니다. 이 신문에는 가톨릭 신자들의 역사, 철학, 종교 연구에 대한 기호를 성숙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선한 학문의 사회”라는 문필가 협의회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역사연구회”로 알려지는 이 협의회는 프레드릭의 꿈이었던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배움의 증진을 위해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협의회”을 실현시켜 줍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활동적인 회원들이 되고 이 협의회를 커다란 토론과 연구의 장으로 발전시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프레드릭과 그의 친구들은 “시몬주의”의 사상을 옹호하는 동료 학생들과 마주치게 되고 “오늘날 사회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너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는 그들의 도전에 반박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프레드릭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신앙을 행동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사도들과 같이 말뿐만 아니라 항구한 자선의 실천으로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프레드릭은 다음과 같은 충고로 친구들을 결속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축복은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로 갑시다.”

**빈첸시오회의 탄생**

1833년 4월 23일, 그의 20번째 생일에 프레드릭과 다른 학생 다섯명이 그들의 조언자 임마뉴엘 베일리와 가톨릭 트리뷴지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자선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곧 “성 빈첸시오회”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들은 베일리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성 빈첸시오의 모범을 따라 자신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심한 그들은 빈첸시오 드 폴 사랑의 딸회 소속 로잘리 랑뒤 수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가정의 주소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잘리 수녀는 파리 모프타르 거리에서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녀는 프레드릭에게 가난한 이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사랑과 존경을 갖고 사도직 활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빈첸시오회의 창립 회원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정도 나누어 주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은 직접적으로 그의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였습니다. 1836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는 변호사직을 맡게 되었으며 리옹에서 상법 교수가 되었습니다. 1839년 그는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솔본느 대학의 인문학부의 경쟁 시험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프레드릭은 1841년 끌로드 포리엘 교수의 조교가 되었고 1844년에는 외국 문학 교수로 그의 후임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일생**

프레드릭은 아멜리 수라크로와를 만나 둘은 사랑에 빠졌고 1841년 6월 23일 리옹의 성 니지에 성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프레드릭의 형제 알폰즈 신부는 혼인 성사의 증인이 되고 또 다른 형제인 의사 샤를이 주례를 섰습니다. 1845년 7월 24일 오자남의 딸 마리가 태어났고 그녀는 오자남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프레드릭은 딸을 가르치며 몇 시간씩 보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가족, 교육, 연구, 집필, 그리고 다양한 시민적·사회적·종교적 참여로 바빠졌습니다.

프레드릭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의 특별한 정서와 사도적 열정을 반영하는 수많은 뛰어난 저서들을 편찬했습니다. “단테에 관한 논문”, “프란치스코적인 시”, “게르만 연구”들이 그것들입니다. 그는 또한 깊은 책임감이 있는 뛰어난 선생님이기도 하였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에 뿌리박은 이 연약한 인간은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자상한 남편, 놀랄만한 작가이자 선생님으로서 그의 많은 막중한 책임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그가 세운 빈첸시오회에 온전히 헌신하면서도 말입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장 자크 앙페레는 학생에 대한 무한한 헌신을 하는 교수로서의 프레드릭의 활기찬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는 “형식과 내용, 지식과 유창함이라는 교수가 갖춰야 할 두 가지 힘을 똑같은 수준으로 가진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자르 드 빌마르크는 앙페레의 이러한 칭송을 더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하느님 한 분 홀로 오자남이 그의 피땀 어린 강연을 통해 가져다 주는 위대한 선을 알고 계신다. 오자남은 그의 말을 듣는 젊은 청중들을 일과 결심, 유용한 업무, 훌륭한 소명에 대한 결심으로 고무시키는 법을 알고 있다! 그는 열정적으로 고취되었고 그는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가 대학을 떠날 때 모두가 그에게 달려가서 대화를 나누고자 했고 그의 말을 다시 듣고자 했다. 그들은 오자남이 집에 갈 때 가로지르는 룩셈부르크 정원의 길을 따라 그를 배웅했다. 그는 지쳤지만 종종 그가 가장 열정적인 박수와 함께 받은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비록 오자남은 자기들만이 배타적인 진리의 승자들이라고 자부하는 편협한 이들에게 엄격했으며 서슴치 않고 그들을 비난하기는 했지만 그는 다른 이들의 견해를 매우 존중하였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경우조차도 말입니다. 그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반대자들을 싫어함이 없이 우리의 확신을 증거합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설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위안이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일했다는 사실일 겁니다.” 라고 그는 그의 삶의 마지막 시기에 말하였습니다.

**빈첸시오회와 사회 정의**

프레드릭의 영향력은 소르본 대학을 넘어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를 통해 그는 노동자들의 세계와 노동 계급의 진정한 어려움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프레드릭은 전형적인 세심함과 성실함을 갖고 문제를 고찰했습니다. 1836년 11월에서 1848년 2월까지의 그의 서신으로부터 발췌한 다음 부분에서 그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족함을 겪고 있고 충분한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 정당하게 사회에서 더 많은 분배의 몫을 요구하고 일자리 보장과 가난을 극복할 방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살필 것을 주장합니다.”

프레드릭은 19세기 실직과 사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활보호수당”의 개념을 체계화한 최초의 가톨릭 신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레드릭의 생각 중 다수가 1891년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Rerum*에 나타나있습니다*.*

비록 프레드릭이 지식인이라 해도 그 역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의와 자선의 원칙들과 조화를 이룬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민주주의를 세우길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에 의지했습니다. 프레드릭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의 개별 접촉 및 직접적인 봉사가 빈첸시오회의 주요 임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빈첸시오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 개인들의 영적, 도덕적, 그리고 인간적 발전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무리**

수년간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프레드릭은 휴식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1852년 그와 아멜리는 이탈리아에 갔지만 그의 상태는 계속해서 더 악화되기만 하였습니다. 그는 영원한 삶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긴 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피사에서 그의 마흔번 째 생일인 1853년 4월 23일 그가 세상을 떠나기 넉달 반 전에 그는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임종이 다가오자, 프레드릭은 프랑스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탈리아를 떠나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느님. 저는 당신이 이 집에서 저에게 내리신 모든 고통과 고뇌에 감사하나이다.”

1853년 8월 31일, 그들은 리보르노 항구에서 증기선 “산업”호를 타고 9월 2일 마르세이유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멜리의 친척들과 빈첸시오회 회원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매우 쇠약해졌지만 그의 고국에 돌아와서 행복했습니다. 프레드릭은 파리로 가기에는 너무 약해져서 아멜리와 그의 가족들은 거처를 빌렸습니다.

1853년 프레드릭이 그토록 위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바친 복되신 성모 탄생 대축일인 9월 8일에 프레드릭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남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는 그가 헌신적으로 가르쳤던 젊은 대학생들에 둘러싸여서 파리의 가톨릭 연구소에 있는 생 조지프 데 까르메 지하실에 안치되었습니다.

**시복식**

프레드릭 오자남의 시복을 위한 재판이 파리 대교구에서 성녀 루이즈 드 마리약의 축일인1925년 3월 15일에 시작되었고 로마에서는 1954년 1월 1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의 1993년 7월 6일자 교령에 의해 프레드릭을 그의 미덕들의 영웅적 행동들에 근거하여 가경자로 선포하였습니다. 3년 후인 1996년 6월 25일에 교황 성하께서는 디프테리아로 고생하던 18개월된 남자 아이를 위한 프레드릭의 전구로 기적이 일어났음을 확인하는 교령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치유된 페르난도 루이스 베네딕토 오토니는 그를 위해 동료 빈첸시안들을 모아 기도한 빈첸시안의 손자였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 청년의 날인 1997년 8월 22일 금요일 아침에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앙토안느 프레드릭 오자남을 시복했습니다.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의 축일은 9월 9일에 지냅니다.***

**4.4 복자 로잘리 랑뒤(1786-1856)**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소속 로잘리 랑뒤 수녀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공동 창설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수녀는 창립 회원들에게 성 빈첸시오와 성녀 루이즈의 정신과 유업 안에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시작**

쟌느 마리 랑뒤는 1786년 프랑스 젝스 지방의 콩포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네 자매 중 맏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소박하고 신앙심으로 가득 찬 부모는 그 지역에서 진정한 존경을 받고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누렸던 작은 땅을 소유한 유지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과 그 뒤에 발발하여 나라에 큰변화와 많은 억압을 야기했던 나폴레옹 전쟁으로 사회가 고통을 겪고 있을 무렵, 쟌느 마리는 세 살이었습니다. 1790년부터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사회 서약을 하는 것이 수도자들에게 강요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제들과 교회 신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몇몇은 사형을 당했고 또 다른 몇몇은 잡히지 않기 위해 숨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앙과 신뢰로 랑뒤 가족은 이들 사제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줌으로써 큰 위험을 무릅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네시의 주교는 랑뒤 집안에 숨어 지내면서 쟌느 마리의 친구인 “정원사 피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쟌느 마리가 양성되었고 어느 날 밤에 그녀 집의 지하실에서 촛불을 켜고 첫 영성체를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쟌느 마리는 부모의 모범을 따라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를 배웠습니다.

**사랑의 딸회 수녀**

쟌느 마리는 우르술라회 소속 기숙학교를 다니면서 젝스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병원 안에서 그녀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의 초상화를 보게 되었고 열여섯 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사랑의 딸회 수녀가 되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1802년 5월 25일, 쟌느 마리 랑뒤는 파리 사랑의 딸회 수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련 기간을 거치고 나서 쟌느 마리는 로잘리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게 되었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를 시작하도록 모우따르 구역의 사랑의 딸회 분원에 파견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파리에서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영적 가난 등 모든 종류의 가난이 다 모여있는 가장 빈곤한 지역이었습니다. 질병, 건강하지 못한 빈민가, 빈곤은 거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매일의 숙명이었습니다. 로잘리 수녀는 이곳에 45년간 머물렀습니다.

모우따르 구역은 진실로 파리에서 가장 빈곤한 구역 중 하나였습니다. 거리에 부랑자는 가장 많았고 실업자도 가장 많았으며 집들은 가장 보잘 것 없었습니다. 주민의 3분의 2는 겨울 동안 쓸 땔감이 모자랐습니다. 로잘리 수녀는 지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방문하고 위로하고 달랬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먹을 빵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내 식욕을 앗아가고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성적 직관에 의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그녀는 지성과 담대함을 갖고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오나 비가오나 매일같이 로잘리 수녀는 묵주를 손에 쥐고 빵을 담은 무거운 바구니를 그녀의 팔에 걸고 하느님과 함께 걸으면서 거리와 골목들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하느님께 그녀가 방문할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기도 드리면서 그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길에서만큼 기도가 잘 된 적은 없습니다.” 그녀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가 초창기 사랑의 딸회 수녀들에게 하신 말씀을 매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루에 열 번씩 가난한 이들을 방문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루에 열 번씩 하느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동료 수녀 중 한 사람은 “그녀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명을 받으면 언제나 성당에 가서 기도 드리거나 그녀의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로잘리의 기도 생활의 강렬함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회장이 된 임마뉴엘 베일리는 프레드릭 오자남과 오귀스뜨 르 따이양디에를 로잘리 수녀에게 보내서 그들 자선 사업에 대한 지침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겸손되히 그들 각자에게 다가가도록 가르쳤습니다. 로잘리 수녀는 프레드릭과 창립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이미 영적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들이 이 귀한 자유 시간을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이들에게 겸손되히 다가갈 것을 압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겪었더라면-만일 우리 어린 시절이 끊임없는 가난의 연속이었다면- 어쩌면 우리들도 이 구역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듯 시기와 증오로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사랑은 여러분이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주는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친절과 사랑을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로잘리 수녀는 자신이 가난한 이들을 맞이하던 사무실을 “응접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조언을 해 주면서 빈첸시오회 초기 회원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당신이 사랑 받기 원한다면 사랑해야 하며 당신이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면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십시오.” 모우따르 거리에서 라틴어 거리(까르티에 라탱)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법대생, 의대생, 교대생, 기술과학대생 등 여러 학교들에서 다양한 직업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그녀의 사무실에 모여들었습니다. 부드럽고 존경하는 태도로 로잘리 수녀는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위한 배려를 보여주었고 그들을 지원했으며 각자가 가난한 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봉사를 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 그들과 그들이 방문하는 가정 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지식으로, 다른 하나는 그들의 봉사로,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말로, 그리고 이들 각각에게 그들 시간의 일부를 내어줌으로써 봉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로잘리 수녀는 언제나 인내, 자비, 그리고 정중함을 권고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지나치게 나무라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은 당신의 도움보다는 당신의 행동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녀는 프레드릭과 빈첸시오회 초기 회원들에게 가정 방문하는 법과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방문할 가족들을 알려주었고 그들에게 존경과 동정심을 갖고 다가가는 빈첸시안적인 방법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로잘리 수녀에 대해서는 “인간다움의 은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에게 가까이 있었으며 그들을 이해했고 그녀의 마음과 믿음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녀의 비결이 있습니다. 게다가 불의와 빈곤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녀는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의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그녀는 실로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 모두의 친구였습니다. “자선을 행할 방법은 많이 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으로 돕는다든가,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으로 돕는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완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자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들의 교육수준과 능력을 관찰하고 그들이 어려움으로부터 나오도록 도와줄 직업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1830년 혁명 기간 중에 특히 7월말에 로잘리 수녀는 폭동으로 가장 고통 받은 이들에게 주의를 집중해서 양편의 부상자들을 모아 그들을 돌봐주고 건강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대결국면에 그녀의 생명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용기는 존경 받을 만 했습니다.

1848년 혁명 기간 중 드니 오귀스뜨 아프르 대주교는 7월 25일 바리케이드 위에서 중상을 입었는데 이때 로잘리 수녀가 군중을 뚫고 바리케이드 위로 올라가서 증오로 가득 찬 군중들을 내려다보며 “당장 사격을 멈추십시오! 내가 돌봐야 할 과부들과 고아들은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라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말은 바라던 효력을 가졌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1852년 프랑스 정부는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로잘리 수녀에게 명예의 훈장 십자가를 서훈했습니다.

로잘리 랑뒤와 프레드릭 오자남의 운명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안에서 엮어졌으며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와 사랑의 딸회 사이의 끈끈한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프레드릭 오자남*의 저자 M.A Hess는 그의 저서에서 이 결합을 확인했습니다. “로잘리 수녀에 대한 회상을 떠올림 없이 프레드릭 오자남의 일생을 추적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에 있어서 그들의 협동이 너무나 잘 이뤄졌다. 이 둘의 운명 에 대한 섭리에 의한 수렴이 19세기 자선의 역사에 자취를 남겼다.”

**마무리**

몸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잘리 수녀는 쉬지 않고 늘 피로와 열에 시달려가며 일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과로에 시달린 탓에 점차 그녀의 강인한 체력은 바닥이 났고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녀 생애의 마지막 2년동안 그녀는 눈이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되어 고생했습니다.

로잘리 수녀는 1856년 2월 7일 선종했습니다. 5만명에 달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이룬 일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어머니”인 그녀에 대해 사랑을 보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모두 그녀가 파리 몽파르나스 공동묘지에 묻히길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어머니 로잘리에게, 당신의 도움을 받은 친구들인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로부터” 이날 그녀의 무덤에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와 성녀 루이즈 드 마리약의 겸손한 딸인 그녀에게 계속되는 경의를 표하는 속에서 꽃들과 기도들이 바쳐졌습니다.

**시복식**

2001년 4월 24일, 교황청은 로잘리 수녀의 미덕의 영웅적 실천을 인정했습니다. 이 파리의 “모우따르 거리의 사도”에게 가경자 칭호가 선포되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그녀를 “놀라운 여인이다. 그녀는 예민하고 역동적이며 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녔고 부드러우며 신중하고 훌륭한 성품과 유머 감각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로잘리 수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2003년 11월 9일 시복되었습니다. 모든 빈첸시안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아름다운 본보기이자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공동 창립자인 그녀를 기념했습니다.

***복자 로잘리 랑뒤의 축일은 2월 7일에 기념합니다.***

**4.5 빈첸시오회의 성인들, 복자들과 가경자들**

빈첸시오 영성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은 개인의 거룩함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빈첸시오 영성은 첫째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하며 둘째로는 그 은총과의 협력에 의지합니다. 이것은 빈첸시오회의 창설자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과 주보성인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를 본받아 형성된 실제적이고 실천위주이며 일대일의 영성입니다. 빈첸시안 영성은 착한 사마리아인을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1833년 빈첸시오회가 창설된 이래 전세계에 걸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빈첸시안 영성의 실천을 통해 거룩해져왔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교회에 의해 인정을 받아서 제대 앞에 올려졌습니다. 장래에 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의 빈첸시안 가족들은 수많은 성인들과 복자들과 가경자들을 배출해왔으나 여기서 우리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활동 회원이었던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성녀 가이아나 베레타 몰라(1922-1962) 축일 : 4월 28일**



가이아나 베레타는 1922년 10월 4일 이탈리아 마젠타(밀라노)에서 열세명의 아이들 중 열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신실한 가정에서 관대한 자선의 정신과 깊은 신앙심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프란치스코 제3회 회원으로서 그녀의 부모는 그들의 가정을 예수 성심께 봉헌하였습니다. 가이아나는 그녀 부모의 기도에 대한 애정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동정심을 물려받았습니다.

가이아나는 1928년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1933년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녀는 학문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음악, 미술, 예술을 더 좋아했습니다. 야외활동에 대한 사랑과 즐거운 가정 생활과 함께 그녀는 조용하지만 행복하고 잘 웃는 소녀였습니다. 가이아나는 늘 묵주를 들고 다녔으며 매일 성체조배를 했습니다.

1937년 베레타 가족은 큰 아이들이 제노아 대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사를 했습니다. 가이아나는 자신의 본당 가톨릭 액션의 활동 회원이 되었습니다. 1942년 그녀의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해 가이아나는 밀라노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4학년때 그녀는 파비아 대학교로 옮겨서 1950년 3월에 의학과 외과 학위를 받았습니다.

의대에 다니는 동안, 가이아나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활동회원이 되었습니다. 수도 성소를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성소 식별을 위해 루르드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피에뜨로 몰라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녀는 1955년 9월 24일 피에뜨로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형제 죠세페 신부는 이 혼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이아나는 훌륭하게 그녀의 직업과 사도직과 가정생활을 해냈습니다. 내과의사인 그녀의 형제 페르디난도와 함께 그녀는 집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2,000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에 의원을 개설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관대했고 그들에게 약과 돈을 주었습니다.

가이아나와 피에뜨로는 세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약했기 때문에 임신할 때마다 위험했습니다. 그들의 아들 피에뤼기는 1956년에 태어났고 마리아 지타는 1957년에, 그리고 로라 엔리카 마리아는 1959년에 태어났습니다. 수 차례 유산을 경험한 후 가이아나는 또 임신을 하였습니다. 임신 2개월 막바지에 이르러 그녀는 통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난소에 섬유종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이아나는 그녀가 겪고 있는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홀로 고통을 참아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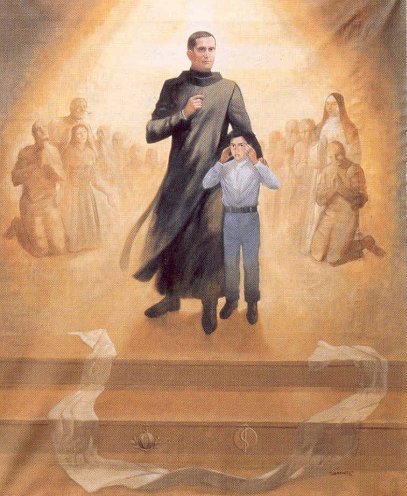
1962년 4월 20일, 병원으로 가던 중에 그녀는 남편 피에뜨로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나와 내 아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이의 생명을 먼저 살려달라고 하세요.” 4월 21일 가이아나 에마뉴엘라가 중절수술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부패된 복막염이 그녀 몸 속에 자리잡아서 가이아나는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독한 약을 거부하고 집에서 죽겠다고 고집했습니다. 4월 29일 그녀는 선종했습니다.

사흘 동안 끝없는 인파가 그녀의 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희생과 커다란 동정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밀라노 대주교는 1972년 그녀의 시복 재판을 개시했고 199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녀의 남편과 네 명의 자녀가 참석한 가운데 그녀를 시복했습니다. 시복식에서 그녀의 아들 피에뤼기는 말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의 매일의 삶을 단순하고 균형 잡히게 그리고 끊임없는 봉사를 하면서 먼저 젊은 학생이자 전문직 종사자이자 여성으로서, 그리고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사는 법을 아셨습니다. 그녀의 가톨릭 액션과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에 대한 관대한 약속과 참여는 그녀의 삶의 기쁨을 따라 그녀의 피아노, 미술, 테니스, 산악 등반, 스키, 교향곡, 연극과 여행에 대한 사랑과 함께 칭송받았습니다.”

성녀 가이아니는 2004년 5월 16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명의 어머니 순교자”로 불리며, 가이아나는 빈첸시안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성 리차드 팜푸리(1897-1930) 축일 : 5월 1일**



리차드 팜푸리는 관대한 마음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1897년 8월 2일 이탈리아 트리볼리찌에 있는 경건하고 유복한 에르미니오 필립포 팜푸리 집안의 열 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세 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리차드는 할아버지와 고모가 있는 토리노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삼촌 카를로는 의료직을 사랑했으며 리차드의 마음속에 병자들을 돕는 것에 대한 깊은 사랑을 불어넣었습니다.

1907년 리차드의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리차드는 가족들의 사랑과 친절로 비극을 견뎌냈습니다. 해외 선교를 진지하게 생각한 그는 대신 의과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누이는 수녀원에 입회했고 그는 프란치스코 제3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리차드는 이탈리아에 반성직주의가 횡행하던 때에 가톨릭 연합회에 참여했습니다. 군대에 소집된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의료 부대에 근무하게 되고 용기를 보여줍니다. 1918년 리차드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1921년 7월 6일 의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다음해에 인턴 과정을 마치고 1923년에 파비아 대학교에 일반 개업의이자 외과 의사로 등록했습니다.

학생 리차드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와 다른 봉사 단체들에 매우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그는 누이 수녀에게 “자존심, 이기심, 다른 어떤 악한 열망도 내가 항상 내 환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발견하고 그분을 치료하고 위로해 드리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기도해 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진정 빈첸시안 영성의 핵심입니다!

리차드는 밀라노로 이사해서 “비오 10세 협의체”를 결성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에 헌신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는 또한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지원하는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수도 성소가 있음을 분별하고 그는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Hospitaller Order of St. John of God)에 가입했습니다. 1928년 10월 28일, 리차드는 공동체에 서원을 하고 브레치아에 있는 의료기관에 배치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그가 겪고 있던 심한 폐병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그의 공동체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폐렴을 앓게 되고 그가 죽을 날을 예언했습니다. 1930년 5월 1일에 그는 33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의 시성을 위한 재판이 즉시 개시되었습니다. 리차드는 1981년에 시복되었고 1989년 11월 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그를 시성하면서 “그는 우리 시대에 가까운 시기에 살았지만 그보다 더 우리의 문제들과 민감성에 가깝게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차드 안에서 빈첸시안들은 전구자가 되어 주실 또 한 분의 성인이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의 위대한 모범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자 프란시스 파 디 브루노(1825-1888) 축일 : 3월 27일**



프란시스는 1825년 3월 29일 이탈리아 알렉산드리아에서 열 두명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열여섯살 때 그는 치에드몬트 군대에 입대하고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1849년 파리에 발령받은 프란시스는 솔본느 대학에서 수학과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에 가입하게 되고 활동회원이 되었습니다.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이 1852년 4월까지 솔본느에서 가르쳤으므로 프란시스는 그를 실제로 알고 지냈을 것입니다.

학문을 계속하기 위해 전역한 프란시스는 당대의 굴지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튀린 대학교의 교수직을 맡기 위해 이탈리아로 이주했습니다. 프란시스는 미국과 유럽의 간행물들에 40개 이상의 글을 썼습니다. 그의 저술은 런던 왕립 학회의 과학 잡지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란시스는 금욕적인 학문들과 경음악도 썼으며 과학 기구들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튀린에서 프란시스는 헌신적인 평신도였으며 자선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를 설립하고 노인 아파트와 다른 자선 단체들을 세우면서 여성과 소녀들의 복지와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1868년 그는 그의 사목을 돕기 위해 고난의 성모회(Sisters of Our Lady of Suffrage)와 성 지타회(Society of Saint Zita) 를 설립하였습니다. 성 지타회는 특별히 이태리 노동자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사제직을 위해 튀린에서 공부했고 1876년 51세의 나이로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는 1888년 3월 27일 튀린에서 선종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8년 9월 25일 프란시스를 시복하면서 “하느님의 사람들 가운데 오신 예언자”이자 “신앙과 자선의 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대의 필요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칭송했습니다. 복자 프란시스는 빈첸시안들에게 그들의 사도직에 대해 많은 생각할 문제들을 남겼습니다.

**복자 콘타르도 페리니(1859-1902) 축일 : 10월 27일**



콘타르도 페리니와 프레드릭 오자남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밀라노에서 태어났고, 두 사람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교수직을 역임했으며 두 사람은 빈첸시오회의 활동회원이었고 두 사람은 훌륭한 저서를 남겼고 두 사람 모두 젊은 나이에 선종했습니다.

콘타르도는 1859년 4월 4일 태어났고 프레드릭 오자남이 세례를 받은 곳과 같은 세례반(洗禮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콘타르도는 항상 그의 나이 열 두살 때 받은 첫 영성체가 그의 삶의 진정한 전환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성체를 영하던 그는 성체를 거룩함의 비결이며 그리스도로 변모하는 수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매일 성체 조배를 했으며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녔습니다.

그의 십대 시절, 두 명의 사제 친구들은 콘타르도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학문과 배움에 대한 사랑에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밀라노 대학교에서 짧은 시간을 보낸 후, 그는 파비아 대학교에서 2년을 공부하면서 파비아 보로메오 칼리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베를린에서 공부를 더 하면서 그는 로마법 교수가 되었고 자신의 분야에서 굴지의 전문가로 떠오르면서 그 주제에 관해 200편도 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학창 시절에 콘타르도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활동회원이 되었습니다.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처럼, 콘타르도도 사제직을 고려했으나 사제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레드릭과 달리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22세에 스스로 독신 서원을 했습니다. 26세에 그는 네 군데의 대학교에서 일했고 마침내 그의 고향 밀라노에서 교수직을 맞았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지방 정부에 근무하였습니다.

콘타르도는 그의 신앙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영과 등산이 그의 취미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산꼭대기의 구름 속에서, 급류의 굉음 속에서 그리고 녹지 않은 눈의 눈부신 장관 속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가 언제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황 비오 11세는 콘타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나의 관계는 순수하게 학문적이며 높은 산들의 아름다움과 함께 다뤄집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거룩함의 고취이며 거의 하느님의 자연적인 계시와 다름없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충실한 회원이었던 콘타르도는 가난한 이들을 도움으로써 그의 믿음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느끼는 축복을 받은 콘타르도는 가난한 이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에게 있어 기도는 매우 중요했으며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모범을 보임으로써 전교하는 것도 좋고 말로 전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전교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위대한 인간들 중 누구라도 하느님을 알고 느낀 적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러한 것이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진 것인지 아니면 제대 앞에서 아침을 보낼 때 얻어진 것인지, 아니면 언덕을 수 놓는 석양을 바라볼 때 얻어진 것인지 아니면 달이 뜰 무렵 성모상에 달빛이 비칠 때 무릎을 꿇고 달콤하고 순수한 기도를 바칠 때 얻어진 것인지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건강하지 못했던 콘타르도는 43세에 발진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하느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는 좋습니다.”라고 그는 임종 때 말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의 의무를 다 했습니까?” 1902년 10월 17일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콘타르도에 대한 공경이 꾸준히 커져갔습니다. 그의 시복 재판이 1910년 교황 비오 10세의 명령에 의해 개시되었습니다. 1947년 4월, 콘타르도는 학생들과 교수들과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복되었습니다. 복자 콘타르도 페리니께서 모든 빈첸시안들을 위해 전구해 주시고 당신의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길!“

**복자 피에르 죠르지오 프라싸티(1901-1925) 축일 : 7월 4일**



피에르 죠르지오는 1901년 4월 6일 이탈리아 튀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알프레도는 유명한 피에드몬트의 일간지 *라 스탬파*의 창간자였으며 1920년 독일 대사로 근무했고 상원의원으로 이탈리아 정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많은 역할들로 인해 그는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을 쏟지 못했습니다. 양육은 예술가로서 꽤 알려졌던, 아이들의 엄마 아델다가 맡았습니다.

아델다는 피에르 죠르지오와 그의 누이 루치아나(피에르가 태어난 다음해에 출생)에게 복음 구절들을 가르쳤습니다. 피에르 죠르지오는 복음 구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자가 아니었고 그의 어머니도 그다지 종교적이지는 않았지만 피에르 죠르지오는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는 피에르 죠르지오의 믿음에 대한 하느님의 은총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12살때부터 24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매일 영성체를 했습니다.

17세가 되자 그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에 가입했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 거룩한 영성체를 통해 나에게 오십니다. 나는 내가 가진 보잘 것 없는 방법인 가난한 이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를 되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날 그에게 어떻게 가난한 이들의 집에서 나는 냄새와 불결함을 참아내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방문하는 집이 매우 더럽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또 다시 빈첸시안 영성의 핵심사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피에르 죠르지오는 가난한 이들을 전반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개개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빈첸시오회에 대해 그의 주장을 높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빈첸시오회의 몇 몇 협의회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싶습니다. 가끔 그리스도교인적 열성은 가득하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들이 빈첸시오회에 없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협의회들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피에르 죠르지오는 누구든, 어떤 댓가를 치르든지 돕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으며 모든 빈첸시안들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 방문에서 그는 커다란 미덕을 보여주었고 자신이 “가난한 다른 어떤 이보다 가난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그의 행동과 대화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과 재치와 인내를 가지고 가난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살핌과 소박함으로 그들의 필요에 응하면서 그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평등의 식을 가지고 소통하였습니다.

1919년 그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증진하는 정치단체인 민중당과 가톨릭 학생 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가톨릭 학생 연합을 가톨릭 노동자 조직과 합치는 방안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자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는 자선과 사회 개혁 두 가지를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톨릭 일간지 *모멘토*를 창간하는 것을 돕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일간지는 교황 성 레오 13세의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교령 *Rerum Novarum*에 담긴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도전의 시기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과 특히 우리 학생들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양성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톨릭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르게 될 전투를 위해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조국에 보다 큰 행복을 가져다 주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항구적인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이 은총 없이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헛될 것입니다. 조직과 규율은 적시에 행동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자신과 우리 열정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에르 죠르지오는 성체 가까이 있고자 하는 강하고 신비로운 열망을 느꼈습니다. 저녁 성체 조배때 그는 무릎을 꿇고 깊은 기도에 잠겨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는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회에서 지도하는 연례 대학 피정에 참가하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가족이 함께 바치던 묵주기도를 사랑했으며 도미니코회 제3회 회원이 된 이후 매일 하루에 세 번씩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피에르 죠르지오는 우정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자주 친구들에게 기도를 청했고 겸손되게 도움, 조언에 대한 요청이나 용기를 북돋아달라는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특히 그의 누이 루치아나와 친했습니다. 피에르 죠르지오가 가난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일하는 동안 그의 누이는 그녀 아버지와 외교관의 세계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청년이었던 그들을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루치아나만이 진정으로 그의 오빠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루치아나는 달랐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와 가장 친한 친구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들과 남자들인 그들은 서로의 편이 되어주며 즐거움과 신앙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 중 두 명의 청년은 사제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로라라는 소녀와 피에르 죠르지오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말년 마지막 몇 달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 부모의 사이는 나빠졌습니다. 피에르 죠르지오와 루치아나는 그들을 함께 살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프라싸티 가문과 같은 계층 출신이 아니었던 로라에 대한 커져가는 그의 사랑이 가족 내에 불화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한 그는 그녀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에르 죠르지오는 급성 회백수염(灰白髓炎)에 걸려서 몸이 마비되어 갔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죽어가는 할머니를 돌보는데 골몰한 나머지 그의 병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피에르 죠르지오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요일, 그가 평소처럼 가난한 이들을 방문하던 날에 그는 잊지 않고 마비된 손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피에르 죠르지오는 1925년 7월 4일에 24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선종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튀린에 알려지자 수 백명의 사람들이 모든 이들에게 친절한 말과 웃음을 선사하던 이 선하고 관대한 청년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와 그의 시신을 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그의 이름이나 사회적 지위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프라싸티 가문의 사람들은 조문객들의 수와 지위 때문에 몹시 놀랐습니다. 루치아나는 그의 오빠에 대한 추억과 그의 어록,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성찰을 담은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90년 5월 20일 피에르 죠르지오를 시복했습니다. 그는 모든 빈첸시안들에게 뛰어난 모범이 되며 특히 본보기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가난한 이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이상들을 사회와 정치에 스며들게 하려는 사명을 잘 결합한 이 혈기왕성한 젊은 활동가 안에서 자신을 동일시 해야 할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자 체페리노 히메네즈 마야(1861-1936) 축일 : 8월 2일**



수 백년간 집시들은 그들 고유의 전통과 풍습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의 가톨릭 신앙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제 그들 중 한 사람이 교회 제단에 들어올려졌습니다. “엘 펠레”라고 불리며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널리 존경 받는 복자 체페리노 히메네즈 마야가 바로 그분입니다.

체페리노는 스페인 후에스카의 프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 시기는 아마도 1861년 8월 26일 경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레리다 출신 집시 여성 테레사 히메네즈 카스트로와 집시풍의 결혼식을 올렸고 아라곤의 바르바스트로 지방에 정착했습니다. 1912년 체페리노와 테레사는 교회에 그들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신고했고 이때부터 체페리노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는 깊은 개종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없는 그들은 질녀 페피타를 입양했고 그녀를 독실한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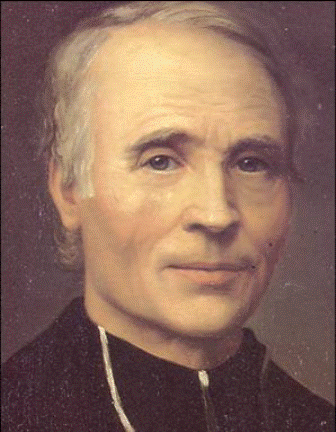
비록 문맹이었지만 체페리노는 존경 받는 말 판매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 교육받지 못한 이들, 그리고 정치적 권력이 있는 이들까지도 그에게 자문과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매일 영성체를 하는 그는 가톨릭 신심과 사업에서의 정직함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선으로 인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활동회원이 되었고 항상 그보다 더 가난한 이들에게 후하게 베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체페리노는 그의 이야기꾼으로서의 위대한 재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기도와 찬송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성체조배 목요일”에 참여했으며 성체 앞에서의 철야 조배를 했습니다.

1936년 7월 스페인 내전 당시 체페리노는 스페인 혁명 전투원이 사제를 체포한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묵주기도를 바쳤고 이는 교도관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의 묵주를 버리면 석방시켜주겠다는 제안을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체페리노는 복되신 동정 성모께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매우 커다란 영예로 여겼으며 결코 하느님의 어머니를 부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936년 8월 2일, 그의 75번째 생일을 3주 앞두고 체페리노는 사격 분대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묵주를 꽉 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여 영원하소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97년 5월 4일 일요일에 “신앙을 위한 순교”는 언제나 “신앙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언급하시면서 그를 시복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선과 성모님께 대한 헌신적인 사랑의 모범을 보인 복자 체페리노는 모든 빈첸시안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가경자 알베르토 카페얀 수아소(1888-1965)**



1998년 3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평신도 알베르토 카페얀의 미덕들의 영웅성을 선포하는 교령을 발표하셨다. 알베르토는 1888년 8월 7일 스페인 산토 도밍고 델라 깔사다에서 태어났다. 그가 1965년 2월 24일 선종한 후, 그의 유해는 그의 출생지로 모셔졌다. 알베르토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회원이었으며 그가 속한 협의체의 회장이었다. 그는 특히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어 그가 숙소를 마련해 주었던 노숙자들에게 친절한 자선을 보여주었다.

**가경자 쟝 레옹 르 프레보스트(1803-1874)**

1998년 12월 21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하느님의 종 쟝 레옹 프레보스트의 영웅적 미덕을 기리는 교령을 공포하셨습니다. 쟝 레옹은 빈첸시오회 최초 협의회의 초창기 회원이었으며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프레드릭은 그의 서한에서 장 레옹을 수 차례 언급했습니다. 쟝 레옹은 사제가 되었으며,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등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사목하는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작은 공동체인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의 수도회의 창설자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빈첸시오회 순교자들**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국립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성역인 성 로버트 벨라마인 교회의 벽에는 스페인 내전(1936-1939) 당시 순교한 586위의 빈첸시오 순교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빈첸시오회 가족의 성인들, 복자들 그리고 순교자들**

더 많은 정보는 빈첸시오 가족의 웹사이트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